“연희단이 사찰 분위기 바꿉니다”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

지난 5월 7일 광주광역시의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장에는 독특한 장면이 연출됐다. 바로 전통복장을 한 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춘 것이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 광경은 올해 광주불교계가 처음 선보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한 사찰 연희단들의 춤사위였다.

광주지역에 처음으로 율동리더와 연희단을 보급해 성공적인 행사의 기틀을 마련한 이가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사진〉이다.

“우리 절 신도들이 더 좋아하던데요. ‘나이 먹어서 뭔 율동이냐’ 고 말하던 할머니들이 더 신나서 춤을 추는 걸 보면 축제에는 역시 춤과 노래가 빠져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명 스님의 말처럼 처음 시도한 연희단과 전체율동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전체 8개 팀이 참여한 연희단 공연과 4000여 명의 신도들이 뜻을 모은 전체율동은 봉축행사를 기존의 엄숙함을 넘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바꿔 놓았다.

“아직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손 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큰 감동과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세심하게 준비하려니 조금 바쁘기도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임하려 합니다.”



일명 스님의 마음은 내년 봉축행사 준비로 이어진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1월 14일 제2기 연희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사찰을 비롯해 신행단체 연희단장들과의 기획단 모임을 시작으로 11월~12월 율동리더 모집 및 교육, 2017년 1월 율동강습회, 1월~4월까지 사찰과 단체별 율동지도 및 보급활동을 펼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연희단과 활기찬 율동을 바탕으로 보다 신명난 행사를 만들 겁니다.”

벌써부터 내년 행사준비에 열정을 보이는 일명 스님은 결코 젊지 않다. 1961년 4살 때 동진출가해 1975년 비구니계를 받고 지금까지 어언 60여 년을 올곧은 수행자로 살아온 노장이다. 동학사 강원을 졸업한 후 광주에서 줄곧 소임을 살았으니 광주불교의 산증인이라 불릴 만하다.

아담한 체구에 늘 조용한 성격인 스님이 불교의 젊음을 상징하는 연희기획단을 이끄는 것이 궁금해 물었다.

“예전에는 오랜 기간 초파일 준비를 했어요. 동지가 끝나면 연잎을 물들이고 말아서 병에 감아 실로 주름을 잡고 누르면 연잎이 돼요. 여기에 팔모등 철사 등살을 만들기 위해 나무에 팔각 모양의 못을 박아 철사로 둘러 만드는 과정을 겨우내 구들방에서 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이제는 너무 한가한 거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연희단이나 율동이 곧 초파일 준비잖아요.”

초파일 준비, 이것은 스님이 늘 해오던 일상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내년 초파일 준비를 시작한 것일 뿐이라는 담담한 대답이었다.

“사찰에서 활성화 될 거라고 믿어요. 일단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기도 때나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찰별 연희단은 궁극적으로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사찰의 변화를 예고한다. 즉 더 밝고, 더 신명나는 사찰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래서 일명 스님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명 스님의 이 같은 포교 열정과 바람은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연희단을 통한 광주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금불사 원력으로 끝없이 정진”

광주 법륜사, 혜초 스님 초청 설법전 석가불 개금불사 회향



11월 20일 광주 법륜사서 봉행된 설법전 석가모니불 개금불사 회향법회.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태고종 광주지역 불자들이 개금불사 원만회향을 기념해 이 같은 원력을 정진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11월 20일 설법전 석가모니불 개금불사 회향과 함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혜초 스님,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사)전통불교영산보존회 회원 스님과 2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해 설법전을 가득 메웠다.

지난 11월 13일 입재를 시작으로 8일간의 기도에 이어 이날 회향한 법회는 오전 10시 종사이운, 종정 법어, 영산작법과 천수바라 등이 펼쳐져 부처님 개금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특히 광주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사)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영산재’의 시연이 펼쳐져 회향의 의미를 더했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신도라면 누구나 소원이 있을 때 절에 찾아와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일념으로 기도를 해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면서 “법륜사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는 도량으로 오늘 부처님께 새로운 옷을 입혀드리는 공덕으로 많은 신도들에게 큰 복(福)이 전달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불자들은 여기에 단순하게 머물지 않고 끝없이 정진해 법륜사가 광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월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자님들의 지극정성으로 새로운 부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종정 스님 말씀을 깊이 새겨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금한 석가모니불은 법륜사 창건 이후 20여 년간 도량을 지켜온 본존불의 일부 법신(法身)이 손상돼 불사를 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년에도 함께 불교문화 배워요”

순창불교연합회, 11월 20일 불교고전 인문강좌 회향



불교고전 인문강좌 참가자들이 청암 스님 안내에 따라 사찰문화답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돼온 순창불교연합회 불교고전 인문강좌가 회향됐다.

순창문화의집 2층 강당에서 총 16강 32시간 강의가 격주로 진행된 불교고전 인문강좌는 불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 부처님의 생애, 사찰예절, 힐링명상, 청소년 인문학, 사찰문화답사, 불교가람 배치, 수행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강좌는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수강 신청해 예상외의 호응을 얻었다.

순창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와 순창불교신도회(회장 이동희)로 구성된 순창불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강좌는 청암 스님이 명상과 사찰문화를 담당하고, 강석훈 강사가 부처님의 생애를, 류재환 강사가 사찰예절과 불교의 가람배치 등을 강의했다.

이번 강좌에 수강한 30여 명의 지역주민들은 20일 순창 구평사, 장성 백양사, 부안 내소사 사찰문화답사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마지막 강좌인 불교문화답사에는 청암 스님과 이동희 신도회장, 복일기 · 서애숙 신도회 부회장 등 순창불교신도회 임원들도 대거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청암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불교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불교고전 인문강좌를 마련했다”며 “예상외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 건립 원만성취 기원법회

조계종 17교구 금산사가 전주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전법도량 수현사의 착공 100일을 맞아 공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11월 23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포교당 건설현장에서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공사기간 중 무사고 기원 및 수현사의 원만한 완공을 기원했다.〈사진 아래〉 법회에는 성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성우 스님은 “2017년 8월까지는 모든 공사일정을 마치고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현사는 대지 2,009㎡, 연면적 4,910㎡에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지난 8월 착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 · 회원한마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11월 19일 광주 사찰음식점 수자타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해의 사업 결산과 내년 예산안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회원한마당을 통해 우수회원들을 시상했다.〈사진 아래〉

상임대표 시각 스님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나눔과 회향사업을 실천해 왔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희망인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꾸려왔다”며 “불교환경연대와 인연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실행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우수회원활동가상은 김복자 · 허승희 씨가, 광주시교육감상은 선경화 · 양윤서 씨가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로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신 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2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 등 자매품 다양)